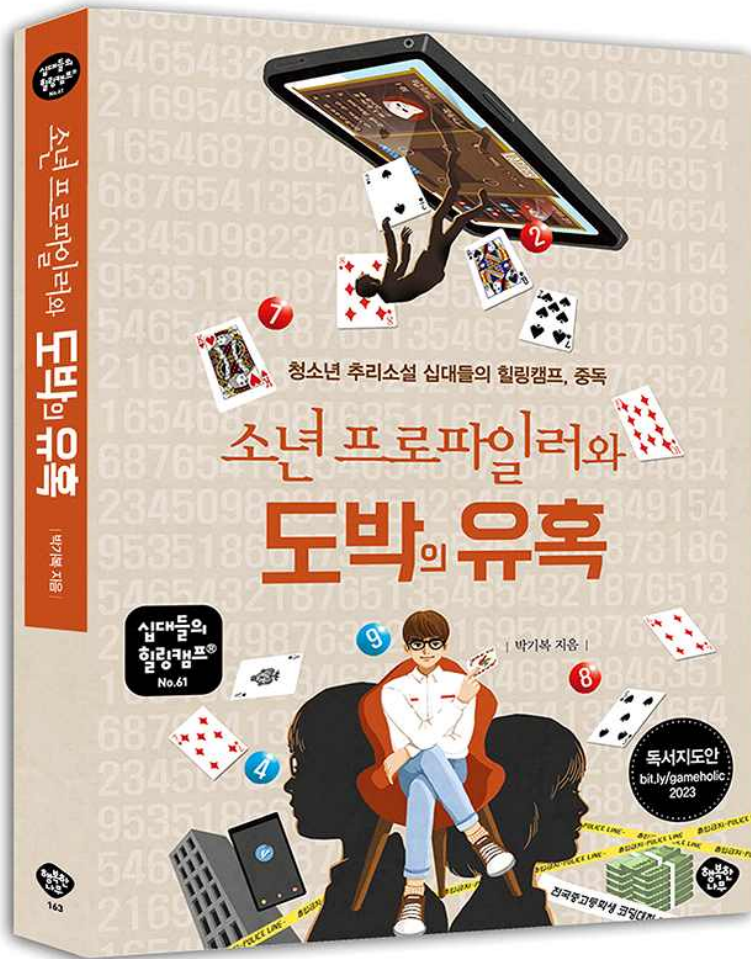


소년프로파일러와 도박의 유혹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중독)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224쪽

- 주제어 : #청소년 #추리소설 #도박 #중독#온라인도박 #도박치료
-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구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침없이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거리 정리하기 잠깐 멈춤! 생각! 옮겨 쓰고 낭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4차시		
	5차시		
	6차시		
읽기 후 활동	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 확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논술문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문 쓰기 준비 논술문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하고 쉽게 논술문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문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술문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주제 탐색] 청소년도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2. [앞표지] 표지 그림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 [읽기 전 생각] 자신이 남들보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온라인도박	#도박중독	#도박치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똥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똥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이 소설은 이우진이 도박에 발을 들이고, 도박에 중독된 뒤, 범죄를 저지르다 파멸의 위기를 맞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이우진이 겪는 사건과 생각, 감정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클로버

: 내가 금손인 줄 알았습니다

과제1. 이우진이 도박에 빠져드는 과정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하세요.

.....

.....

.....

.....

.....

.....

.....

.....

과제2. 이우진이 도박에 빠진 원인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세요.

1. 친구들과 어울리며 인정받는 기분을 계속 맛보고 싶었다.

.....

2. 자신이 원하는 값비싼 물건을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고 싶었다.

.....

3.

.....

.....

.....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기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옳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옳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도박, 게임, 스포츠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마음껏 외치고 싶었다. 들킬 걱정만 없다면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다. 온 세상 사람에게 내 기분을 드러내고 싶었다. 50,000원이 32만 원이 되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50,000원이 여섯 배로 커져서 돌아오다니... ... (중략) ...

그런 행운을 '초심자의 행운'으로 부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초심자의 행운'이란 막 입문한 초보자가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말한다. 도박, 스포츠, 주식 등에서 많이 쓴다고 한다. 내게도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 44~46쪽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이 소설은 이우진이 도박에 발을 들이고, 도박에 중독된 뒤, 범죄를 저지르다 파멸의 위기를 맞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이우진이 겪는 사건과 생각, 감정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트

: 나는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과제1. 이우진이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르는 나쁜 짓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

.....

.....

.....

.....

.....

.....

.....

과제2. 도박에 빠지면서 이우진에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정리해보세요.

1. 수업이나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도박과 돈 생각만 한다.
2. 다른 것들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괜히 짜증을 많이 낸다.
- 3.

.....

.....

.....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옴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옴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도박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키지 못합니다. (도박뿐 아니라 다른 나쁜 짓도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돈을 마련하면 그때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하자. 그래, 딱 그만큼만 하자.’ 단단히 결심했다. (60쪽)
“이번만 하는 거야. 크게 벌고 그만두는 거야. 깔끔하게.” (62쪽)
‘그래, 이번만 하는 거야. 이번만 하고 그만두면 돼.’ ‘이번만’이란 단어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했다. (73쪽)

즐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즐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즐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이 소설은 이우진이 도박에 발을 들이고, 도박에 중독된 뒤, 범죄를 저지르다 파멸의 위기를 맞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이우진이 겪는 사건과 생각, 감정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다이아몬드

: 그것은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과제1. 이우진은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며 점점 타락합니다. 그 과정을 중심으로 즐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
.....
.....
.....
.....
.....
.....
.....

과제2. 도박조직이 학생들에게 저지른 나쁜 짓을 정리해보세요. (이우진이 한 것도 포함해서)

1. 빚을 갚지 않는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
.....
2. 선뜻 돈을 빌려주어 도박빚을 지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
3.
.....
.....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옳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옳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그것은 위험한 전염병입니다’가 이 장의 제목이에요. 왜 도박을 전염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강사는 도박이 질병이라고 했다.
‘똥! 도박이 질병이라니…… 병원에 가야 한단 말이야? 미치겠군.’ - 98쪽 -

도박에 빠지면 왜 판단능력이 마비될까요?

도박에 빠지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나도 그랬다. 도박에 대한 나쁜 말은 귀에 안 남는다. 어떻게든 도박을 좋게 포장하려고 든다. 돈이 급하면 앞뒤 가리지 않는다. 빚을 쉽게 여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탓이다. 한지훈이 나와 같은 상태였다.
- 115쪽 -

즐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즐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즐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장태오의 파멸입니다. 장태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과 그 사건의 뒤에 감춰진 진실을 통해 도박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이해하면서 즐거리를 정리해 보세요.

♠스페이드

: 도박의 끝은 파멸입니다

★조커

: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필로그

: 손 내미는 용기

과제1. 장태오가 파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즐거리로 정리해 보세요.

.....
.....
.....
.....
.....
.....
.....
.....

과제2. 흥구산이 밝혀낸 진실을 정리해 보세요.

- 1. 도박에 빠진 모든 애들의 동태를 파악한 방법은 휴대폰에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 2.
-
.....
.....
.....
.....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옳게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옳게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이우진의 생각입니다. 아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쁜 놈들은 비겁하다. 자기보다 힘이 세면 재빨리 굴복한다. 돈은 힘이 세다. 가장 힘이 세다. 도박하는 놈들에게 돈은 최고다. 도박하는 놈들만 그런가? 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돈 많은 백수'가 되겠다는 애들이 주변에 엄청 많다. 돈이 곧 꿈이다. 의사를 꿈꾸는 아이도 목표는 결국 돈이다. 사람 목숨을 구하려고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만약 의사가 돈을 못 버는 직업이라면, 과연 꿈이 의사인 학생 중에서 몇 명이나 계속 의사를 꿈꿀까? 아마 몇 명 안 남을 것이다. 도박이나 공부나 돈이 목표라는 점에서는 같다.

- 151쪽

토론하기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학교당국이나 어른들이 아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딱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각자 정리한 다음, 서로 의견을 나누며 종합해보세요.

* 대책을 몽둥그려서 제시하지 말고 해당 영역을 구분해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학하고 셋째 주, 도박 예방 교육을 했다. 학교에서도 어떤 낌새를 알아챈 모양이었다.
 나는 맨 뒤에 앉았다. 강사가 영상을 보여 주며 뭐라고 떠들어 댔다.
 강사는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뭘 소리야? 간단한 게임인데 뭘 모르네.’
 강사는 도박이 질병이라고 했다.
 ‘똥! 도박이 질병이라니…… 병원에 가야 한단 말이야? 미치겠군.’
 강사는 도박으로는 돈을 딸 수 없다고 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말이었다.
 ‘나야 그렇지만 장태오는 수백만 원을 땀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탄 사람도 있다고.’
 ‘저 강사는 현실을 참 모르네.’
 강사는 도박은 절대 혼자 힘으로 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나는 언제든 도박을 끊을 수 있어.’
 나는 강사가 하는 말마다 속으로 반박했다.

98~99쪽

(나)

나는 삶이 재미없었다. 왜 사는지와 같은 거창한 질문 따위는 필요도 없었다. 그냥 재미없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까마득했다. 이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단 말인가? 공부하는 이유도 모른 채 공부했다.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학교에 갔다. 학원을 가라고 하니 갔다. 숙제를 안 하면 벌을 받고, 야단을 맞고, 늦게까지 남기니 숙제를 했다. 좁은 공간에 양 떼처럼 모인 교실이 싫었지만 내게 선택권은 없었다. 따돌림을 당하기 싫어서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짜증이 났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난한 생활이었지만 나에게서는 기쁨이 없었다. 어떤 애가 자신은 스무 살이 되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내게 돈은 중요했다. 지금도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 많은 돈을 갖고 싶었다. 돈이 주는 힘과 자신감을 맛보니까 더 간절하게 큰돈을 원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었다. 큰돈을 탄 경험이 도박 중독을 만든 원동력이기는 했지만, 중독에 빠진 핵심 뿌리는 내 삶 자체에 있었다.

- 51쪽

구분	해결책 / 대책
개 인	
친구사이	
학 교	
지역사회	
국 가 (정부/지자체/ 국회)	

■ 친구들이 제시한 해결책

적절해 보이는 해결책	적절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해결책

■ 토론을 통해 마련된 해결책을 정리해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질문1-1】 왜 도박에 거는 돈은 수학을 모르는 이가 도박장에 바치는 기부금일까요?

“영화 『머니볼』을 꼭 봐. 그 영화를 보면 네가 좋아하는 야구에 수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담겨 있어. 이런 말이 있지. 도박에 거는 돈은 수학을 모르는 이가 도박장에 바치는 기부금이며, 복권을 사는 돈은 수학을 모르는 이가 정부에 따로 바치는 세금이라고.” - 214쪽

【질문1-2】 왜 도박으로는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승률이 절반이니 돈이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승부에서 지면 베팅한 돈을 다 잃는다. 그 반면에 승리하면 수수료를 떼고 받는다. 수수료 7%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다. 따고 잃는 게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계속 수수료를 제하고 받으니 내가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들었다. -54쪽-

나는 조금 더 과감하게 걸었다. 그렇게 밤새 도박이 이어졌다. 따기도 하고, 잃기도 했다. 꽤 많은 돈을 얻기도 했다. 물론 딴 돈은 바로 판돈으로 썼다. 잃고 따기를 거듭하면서 내 돈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창문이 환해질 때쯤 중고거래로 번 돈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63쪽-

【질문2】 행운과 도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가)

몇몇 애들이 나를 부러워하며 자꾸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호기심만 자극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 애들에게 정승필, 박민우, 신준영이 접근했다. 나는 그들이 애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만 아는 비밀이 사라지는 듯해서 아쉬웠지만 괜찮았다. 나 같은 금손은 드물 테니까. -49쪽-

그런 행운을 ‘초심자의 행운’으로 부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초심자의 행운’이란 막 입문한 초보자가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말한다. 도박, 스포츠, 주식 등에서 많이 쓴다고 한다. 내게도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 온 것이다. - 46쪽 -

(나)

나는 첫판을 노렸다. 욕감이 좋았다. 행운이 찾아올 듯했다. 모든 돈을 첫판에 걸었다. 여기에서 따면 바로 문제집 살 돈은 빼놓고 딴 돈으로만 도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판만 따면 문제집 살 돈은 그대로 남는다. 기다리는 시간은 흥분으로 채워졌다. 나는 이기리라고 확신했다. 내게 행운이 오리라고 믿었다. 나는 금손이니 승리를 거머쥐리라고 믿었다. 끝내기 안타를 쳤던 바로 그때와 같은 감격을 맞보리라고 확신했다.

“뭐야?”

확신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졌다. 나는 금손이 아니었다. 똥손이었다. 문제집을 살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다니….

-65~66쪽

(다)

나는 방학 내내 열심히 공부했다. 특히 수학 공부에 집중했다. 내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상담 선생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다.

“영화 『머니볼』을 꼭 봐. 그 영화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야구에 수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담겨 있어. 이런 말이 있지. 도박에 거는 돈은 수학을 모르는 이가 도박장에 바치는 기부금이며, 복권을 사는 돈은 수학을 모르는 이가 정부에 따로 바치는 세금이라고.”

선생님이 권해 주신 영화를 보았다. 확률과 통계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 영화에서 받은 깊은 울림은 자연스럽게 나를 수학 공부로 이끌었다. 도박과 관련이 깊은 확률부터 공부했다. 뒤이어 통계도 열심히 파고들었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

수학을 공부하니 도박이 도박꾼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설계된 구조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도박꾼은 도박판 운영자를 절대 못 이긴다. 확률과 통계는 그것을 말해 주었다. 도박중독자는 자신만은 확률과 통계에서 벗어나 특별한 행운을 누릴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은 남과 다르게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고 믿는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믿음이다.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빠지는 황당무계한 ‘미신’이다. 지구에 살면서 나만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중력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친다. 중력에 예외는 없다. 도박도 마찬가지다. 도박은 수학이 지배한다. 수학은 중력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중력은 지구를 지배하고, 수학은 도박판을 지배한다. 도박판에 끼어들면 누구나 망한다. 도박판에 예외는 없다.

214~215쪽

2-1. 도박처럼 행운에 기대어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는 다른 도박중독자들과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왜 자신은 금손이고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걸까요?

2-2. 윗글을 바탕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질문3】 청소년도박은 대부분 온라인도박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수단은 휴대폰입니다. 온라인도박에 빠지지 않으려면 건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나쁜 쪽이 아니라 건전한 쪽에 잘 쓸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잘 사용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장태오와 최동민은 쉬지 않고 떠들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갔다. 둘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스마트폰은 아침에 제출해야 하는데 몰래 챙겼나 보다. 둘은 잘나가는 아이들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특히 학교 규칙을 어겨 벌점을 받았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14쪽

【질문4】 10대들은 또래문화가 중요하기에 친구 따라서 나쁜 짓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도 있지요. 잘못된 또래정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구 경기가 벌어진 다음 날이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생겨서 좋았다. 그들은 내 분석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구단에 관한 정보는 상세히 알았기에 아는 만큼 전달했다. 그리고 나면 고맙다는 말도 들었고, 원망도 들었다. 원망은 꽤 짜증 섞인 표현과 함께 돌아왔지만 그래도 좋았다. 정승필, 박민우, 신준영!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주범이다. 그들과 친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소심하지만 착하게 살았을 성격이었다. 나는 그들 때문에 도박이라는 늪에 빠지고 말았다. -21쪽-

【질문5】 참된 용기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 잘못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참된 용기일까요?

(가)

“……너도 몇 번 말했듯이 도박은 혼자 힘으로 끊지 못해.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호찬이가 날 조커라고 소개했다고 들어. 정확히 말하면 네 옆에는 조커가 많아. 가장 좋은 조커는 부모님이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 때로는 너를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네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야. 그 조커를 써. 그리고 강의하신 그 선생님도 꼭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 너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거야. 명심해. 네 삶을 바꾸는 조커는 바네 옆에 있다는 것을……. 단지 넌 그 조커들을 몰랐을 뿐이야.” -201쪽 -

(나)

“친구들, 누구나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 살아가면서 실수는 누구나 해. 나도 큰 실수를 했어. 그리고 실수는 바로 잡으면 돼. 혼자 바로잡기 힘든 실수라면 주변에 도와 달라고 해. 도움받는 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용기야.” - 223쪽 -

【질문6】 이우진은 무의미한 삶이 도박중독을 일으킨 핵심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진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의미 있는 삶을 찾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내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허무했다. 사춘기 감성이 아니다. 중2병에 걸린 녀두리가 아니다. 나는 삶이 무의미했다.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도박하면서 내 삶은 다른 빛깔이 되었다. 삶이 주는 쾌감을 맛보았다. 게임에서도 느끼지 못한 충만감이었다. 베틱하고 기다리는 짧은 순간. 나는 살아 있는 기분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평소에는 결코 맛본 적 없는 쾌락이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해방감이 찾아왔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이 정지한다는 착각에 빠졌다. 정지된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느꼈다.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경험도 그런 뿌듯함을 안겨 주지 않았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다. 어린이 야구단에 다닐 때였다. 어린이 야구답지 않게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다. 감독님은 부담 없이 즐기라고 했지만 갈수록 감독님조차 승부에 몰입했다. ……(중략)…… 나는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다. 공은 외야를 갈랐다.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2루타였다. 게임은 그것으로 끝났다. 모든 선수가 나에게 달려왔다. 감독님도 뛰어왔다. 나를 가운데 놓고 모두 환호했다. 살아오면서 그런 환호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 강렬한 쾌감이라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감동이었다. 모두가 나를 추켜세웠다. 무뚝뚝하던 감독님까지 나를 칭찬했다. 그 순간, 나는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딱 한 번으로 끝나 버렸다.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야구는 내 인생에서 멀어졌고, 나는 시시한 학생이 되었다.

- 52~53쪽

논술문을 쉽게 쓰는 방법

- 논술문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내가 설득하려는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릅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논술문을 쓸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내가 설득할 대상이 불분명한 채로 논술문을 씁니다. 그러니 논술문을 쓸 때 재미가 없고, 설득해야 할 간절함이 없으니 논리도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설득할 상대방을 떠올리며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의견인지, 왜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네가 틀렸으니 고치라는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 좋은 논술문이 나올 수가 없지요.
- 그래서 논술문을 잘 쓰려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 동생, 담임, 교장 등 설득할 대상이 분명하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뚜렷해집니다. 그다음은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불만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나면 논술문 쓰기는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놓고 쓰라고 해서 논술문 안에 상대방의 호칭을 꼭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 다음으로 상대방의 특성에 맞게 설득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글을 읽을 상대방을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그 사람을 설득해내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설득 논리)을 찾아야 합니다.
- 논술문을 쓸 때 대다수 학생들은 자기 생각만 쪽 늘어놓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설득할 상대방은 그 논리만 듣고 바로 설득이 될까요? 아니죠. ‘내 생각은 이래요’하고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상대편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지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논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인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따져보며 그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재반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의 순서가 대략 나옵니다.
 - 1) 내가 왜 설득에 나서는지, 내 불만이 무엇인지 등이 글 첫머리가 됩니다.
 - 2) 내가 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 3)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정리합니다.
 - 4) 상대의 논리를 재반박하면서 내 주장을 펼칩니다.
 - 5)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적절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 흔히 논술문의 형식을 서론-본론-결론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술문의 형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형식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득을 하는 데 상대방의 특성이나 내 주장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 논술 실력은 ‘왜Why?’와 더불어 자랍니다. 끝없이 ‘왜?’하며 묻는 질문 속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이 커나갑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왜?’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대로 끝까지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나쁘다’는 신념에 끝없이 ‘왜?’를 던져보세요.
ex. 거짓말은 나쁘다. → 왜 나쁜데? → 거짓말을 하면 남이 나를 못 믿는다. → 왜 못 믿는데? → 당연히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안 믿지. → 못 믿는다고 왜 문제인데? → 그럼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어렵잖아. → ……
-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자기 행동이나 선택을 왜 하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만약 일상에서 차분히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논리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논술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논술문 예시는 『중학생을 위한 논술 만점공부법』(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논술문 쓰기 준비

준비사항① 내가 설득할 대상과 핵심주장

설득할 대상을 선택하세요 : □에 √표시를 하세요.

- 도박에 깊이 빠진 친구 또는 도박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제 막 시작한 친구
- 학생들의 도박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학교, 교육당국, 지역사회, 정부

설득하려는 핵심 주장 :

준비사항②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리

| 이 책에서 본 내용과 사례를 적극 활용하세요.

준비사항③ 설득하려는 대상이 내 논리에 반박하며 제시할 주장과 근거 정리

준비사항④ 상대방의 반대 근거를 재반박하는 논리를 준비

논술문 공유하기

※ 논술문을 공유할 때는 자신이 설득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논술문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논술문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인 <수학 탐정단> 시리즈도 있습니다. 또한, <달빛소녀> 시리즈를 통해서 판타지 소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